

# 원로 언론인, 환경 원로

박노경 선생님의 자서(自書) - 2 -

박 창 근

〈본회 고문/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〉

## کم맹 탈출 이후

- 사이버 카페에 '환경' 詩도 올리고 -

박 노 경 (일사회 고문)

\* 지난 회 마지막 글 : “다음의 〈山河에 情을 주니...〉라는 제목의 환경 시조들도 최근에 ‘노을의 집’이라는 카페에 올린 태그 작품이다.”

〈山河에 情을 주니...〉

1) 비 속의 山行

(ㄱ) 빗속을 산에 올라  
 첫 봉에 홀로 서니  
 구름은 산을 휩싸고  
 五月이 生動하네  
 古人의 別有天地가  
 여기인가 하노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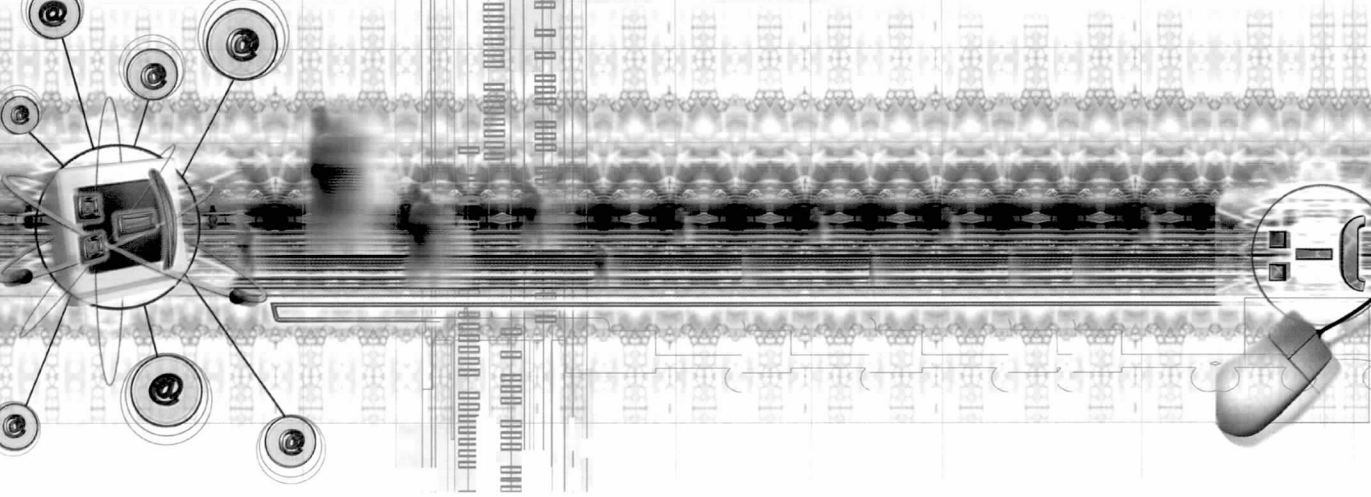
(ㄴ) 비구름 질게 얹게  
 산을 싸고 흐르는데  
 물소리 바람소리  
 間奏인양 빠꼭새 소리  
 脫世俗 삶이 기쁨이  
 마음속까지 적시누나

(ㄷ) 거북산을 휩싼 것이  
 안개나 구름이나  
 天地가 하나된 곳  
 雲霧 속에 눈 감으니  
 지나온 喜怒哀樂이  
 저 세상일만 같아라

이 〈山河에 情을 주니...〉를 ‘노을의 집’ (카페)에 올렸더니 카페 주인과 회원들의 꼬리말이 잇달아 올랐다. 자찬 같아 좀 쑥스럽지만 그 중 몇 개를 옮겨본다.

▶노을 : 계암(필자의 아호)선생님 환경운동하시는 고매한 뜻을 진작 알았지만 이 시조를 읽고 보니 선생님의 높은 뜻을 알 듯도 합니다. 좋은 글 노을의 집에 올려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. 건강을 빕니다.

▶긴또깡 : 하에 정을 주니..이 얼마나 고매하신 영혼이십니까. 시집 한 권 출판하시지요. 그리고 출판 기념회로 저희들도 불러 주시구요. 귀한 선비님 몰라 뵈었습니다. 건강 하시옵소서.



▶드라곤 : 때 늦게 읽었습니다. 시귀 절절이 계암 선생님의 고고하신 雅趣가 풍겨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. 詩作의 연대가 90년대 초 같은 데 그 때면 계암 선생님께서 한창 산행을 왕성히 하셨던 시절 아닌가요. 벌써 강산의 모습도 변할 15년 전 일이니 감회가 깊습니다. 지금 부터는 연세에 맞는 운동과 시재를 선택하심이 좋겠지요.

컴맹 탈출 이후 누리고 있는 PC의 즐거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. 카페마다 마련되어 있는 유미 방 또는 웃음 코너에 들어가 보면 포복절도할 글을 읽을 수 있고 아름다운 글방에 들어가면 젊음과 사랑의 훈훈한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. 어디 그 뿐인가. 꽃과 새 희망이 피어나는 4월의 아름다운 시정(詩情)에 젖을 수도 있으며 노후의 지혜로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계로록(戒老錄)

을 접할 수도 있다. 이밖에 젊었을 때 불렀던 정겨운 옛 노래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감상할 수도 있다. 또 있다. 여러 일간지의 기사와 '이엔 비즈/콘 테크'의 환경 뉴스 및 원자력 문화원에서 보내오는 에너지관련 뉴스를 읽고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정보 욕구를 충전하는 이점도 있다. 그리고 이따금! 가슴 벅찬 명시(名詩)와 맞닥뜨릴 때도 있는데 최근 독도문제로 국내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 한 카페에서 읽은 이근배 작 <독도 만세>와 같은 시가 그런 예이다. 그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.

#### <독도 만세>

하늘의 일이었다/ 처음 백두 대간을 빗고/ 해 뜨는 쪽으로 바다를 앗힐 때/ 날마다 태어나는 빛의 아들/ 두 손으로 받아 올리라고/ 여기 국토의 솟을 대문 독도를 세운 것은/ 누 억년 비, 바람 이겨내고/ 높은 파도 잠재우며/ 오직 한반도의 역센 뿌리/ 눈 부릅뜨고 지켜왔거니/ 이 홀로 우뚝 솟은 봉우리에/ 내 나라의 혼 불이 타고 있구나/ 독도는 섬이 아니다/ 단군사직의 제단이다/ 광개토태왕의 성벽이다/ 바다의 용이 된 문무대왕의 뿔이다/ 불을 뿜는 충무공의 거북선이다/ 최익현이다, 안중근이다, 윤봉길이다/ 아니 오천년 역사이다/ 칠천만 겨레이다(후략)

이상은 컴맹 탈출이후 내가 경험하고 있는 PC생활의 스케치지만, 앞으로도 기세(棄世) 할 그때까지 PC없는 생활을 나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다. 그 결정적인 이유는 PC만큼 내 뜻도 살리고 재미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여생의 길동무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. 두뇌와 손가락의 활발한 운동이 치매를 예방하기 때문이라는 타산적인 동기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다. (㉞)



오래 전 강원도 잠퍼리대회장소 환경실사 갔을 때의 UNEP 글로벌500 한국인의 기념사진이다. 좌로부터 노용희 박사님, 차철환 박사님, 박도경선 생님, 권숙표 박사님, 그리고 박창근 환경기술인연합회 고문